



내년 가을잔치위해... KIA '지옥 훈련'

호랑이들의 독한 훈련이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가 내달 4일부터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마무리 훈련 일정을 확정했다. 4강 진출에 실패한 KIA는 내년 시즌 명예회복을 위해 3개월에 걸친 독한 마무리 훈련을 준비했다.

체력적인 열세를 올 시즌 4강 싸움의 분수령이 됐던 7~8월, 중요한 고비에서 치고 오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내달 4일 주전도약을 노리는 선수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

29일 성남 상무구장에서 열린 상무와의 경기를 끝으로 퓨처스리그 일정을 마무리한 2군 선수단과 1.5군 선수들은 내달 4일 무등경기장에 재소집된다.

내달 4일부터 3개월간... 백업요원 육성 등 선수단 정비

내달 16일까지 무등경기장 야구장과 함평 야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을 갖는 선수단은 17일 남해 캠프로 장소를 옮겨 기초체력훈련과 기술훈련 등을 병행하게 된다.

플타임을 소화한 1군 주축선수들은 내달 24일까지 달콤한 휴가를 얻었다. 예년과 달리 12월에 마무리 훈련이 예정되면서 10월에 휴가를 즐기게 된 것이다.

10월 2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물품기에 들어가는 주축 선수들은 11월1일 남해캠프에 합류해 훈련

을 하게 된다. 남해 마무리 캠프는 11월19일까지 계속된다. 일본에도 캠프가 꾸려진다. KIA 선수단은 11월21일부터 12월24일까지 일본 미야자키 휴가 시 오쿠라가하마구장에서 훈련을 갖고 2010년을 정리할 계획이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뜨거운 스토브리그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승 이후 고요한 스토브리그를 보냈던 KIA는 이번 겨울 강훈을 통해 백업 선수를 육성에 나선다는 한편 트레이드 등의 카드를 총동원해 선수단

정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년과 달리 12월 훈련이 예고되면서 뜻밖의 '결혼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 겨울 KIA에서는 내달 31일 투수 유동훈을 시작으로 내야수 최희섭·박기남, 외야수 최훈락, 투수 김웅비·양동일이 새신랑이 된다.

휴식기에 맞춰 결혼을 준비했던 KIA 예비신랑들이 예년과 다른 훈련 스케줄에 결혼 일정을 변경하는 등 분주한 가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오는 12월5일 결혼을 발표했던 최희섭은 선수단이 일본에서 마무리 캠프를 하게 되면서 동료를 없이 결혼식을 치러야 할 입장에 처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안치홍 왼쪽어깨 수술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안치홍이 좌측 어깨 수술을 받았다.

안치홍이 29일 서울 김진섭 정형외과에서 좌측 어깨관절 연골 봉합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친 안치홍은 3~4일 정도 입원해 경과를 지켜본 뒤 광주에 내려와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할 예정이다. 기술훈련 등 본격적인 훈련에 복귀하기까지는 4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안치홍은 올 시즌 데뷔 2년 만에 133경기에 모두 출전하면서 전경기출장기록을 세웠다.

2010시즌 전경기에 나선 선수는 안치홍을 비롯해 포수 조인성(LG), 내야수 강정호(넥센) 세 명이 불과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셔틀콕' 이용대 AG 남북식만 출전

팔꿈치 통증에 훈련량 부족... 회복 포기

최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남자 배드민턴 간판선수 이용대(22·삼성전기)가 2010 광주 아시안게임 때 북식에만 출전한다.

김중수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은 29일 "이용대가 팔꿈치 통증으로 4-5개월 동안 훈련을 하지 못해 제 기량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팔꿈치는 관창지만 훈련량이 부족하다. 파트너와 호흡도 아직 정상이 아니고 수비에서도 잔 실수가 있다. 남은 기간에 집중훈련을 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어 "아시안게임을 고려할 때 두 종목(혼합 북식·남자북식)에 모두 출전

하는 것은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남자 북식에만 출전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세계선수권대회 도중 팔꿈치를 다친 이용대는 상태가 악화돼 지난 1월 말레이시아오픈 도중 기권했다. 지난 3월 전 영오픈에서는 통증은 없었지만 혼합북식 결승 문턱에서 좌절했다.

이 때문에 김용대는 지난 5월부터 팔꿈치 재활에 집중했고, 지난달 대만오픈 남자북식에서 정재성과 호흡을 맞춰 금메달을 따내 회복되는 듯했지만 이후 이어진 대회에서 좀처럼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용대는 최근 막을 내린 일본

오픈 슈퍼시리즈 남자북식 1회전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대표팀 역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중수 감독은 "이용대의 현재 스피드를 보면 팔꿈치에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다. 훈련부족인 만큼 남은 기간에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 예전 실력을 끌어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스윙 자세를 조금 교정해서 힘과 스피드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집중 훈련을 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자 북식에서는 이용대-정재성뿐 아니라 유연성(수원시청)-고성현(김천시청)과 권이구(김천시청)-조건우(삼성전기)의 실력이 올라오고 있어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아이스하키는 격투기?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 던다스에서 열린 북미 아이스하키키리그 시범경기에서 오타와 세네테르의 수비수 매트 크랭크너(오른쪽)와 버팔로 사브르스의 공격수 데니스 맥콜리가 싸우고 있다.

/연합뉴스



매길로이-우즈 라이더컵 기싸움

◀ "맞짱 한번 뜨자" "그래~ 한판 붙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유럽과 미국의 골프대항전인 2010 라이더컵을 앞두고 유럽의 떠오르는 샛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즈는 29일(이하 한국시각) 외신과 인터뷰에서 매길로이가 맞대결을 원한다는 질문에 "나도 그렇다"고 짧막하게 대답했다.

좀 더 상세히 말해달라는 요청에는 "노(No)"라고 거절하면서 여유로운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다음달 1일부터 웨일스 뉴포트의 셀타매너 골프장(파71.7천378야드)에서 열리는 라이더컵은 유럽과 미국의 자존심 대결만큼이나 우즈와 매길로이의 맞대결 성사 여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년 만의 우승 탈환을 노리는 유럽의 선봉에 선 매길로이는 지난달 언론과 인터뷰에서 "타이거 우즈와 맞붙고 싶다"면서 일찌

감치 우즈를 도발하고 나섰다.

특히 "다음 달까지 우즈의 경기력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고서야 유럽 팀의 누구라도 우즈와 대결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우즈를 자극했다.

이 말을 들은 우즈는 지난 13일 끝난 BMW 챔피언십 당시 매길로이에게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조심하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우즈는 지난해 말 불거진 성추문으로 이

혼까지 겪으면서 올 시즌 부진을 면치 못했다. 투어 성적이 나빠 대표팀에도 선발되지 못할 뻔했다가 단장이 직권으로 선발하는 와일드 카드로 합류해 자존심을 구긴 우즈는 명예 회복을 버리고 있다.

대회 전부터 두 사람의 '장외 살전'이 벌어지면서 맞대결까지 성사된다면 우승 트로피의 향방을 가늠할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양용은 1억원 기부

내달 4일 자선 스킨스게임 참가

2009 PGA 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38)이 코오롱 제53회 한국오픈골프대회를 앞두고 자선 스킨스 게임에 참가한다.

10월4일 천안 우정힐스 골프장에서 열리

는 스킨스게임에 양용은은 1억원의 자선기금을 내놓았다. 이 대회에는 한국프로골프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대현(22), 영건 이진범(20), 노승열(19)과 함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이종범, 탤런트 최수종, 송일국, 초등학생 골퍼가 참가할 예정이다. 상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된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